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 富春堂版과의 관계 -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Hushimi Edition in Japan

- How It Relates to Hushundo Edition -

曹 炯 鎮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6.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2. 伏見版 및 富春堂版의 概要 | 7. 結 論 |
| 3. 伏見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 <참고문헌> |
| 4. 伏見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부록] 德川家康의 伏見版 관련 |
| 5. 伏見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연표 |

< 초 록 >

(1) 伏見版이란 德川家康가 1599년부터 1606년까지 伏見에 있는 圓光寺에서 목활자로 인쇄한 12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이에는 富春堂版 목활자로 인쇄한 1종이 포함되어 있다. 근세에 이르러서도 4종의 서적을 인쇄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면서, 문자의 미감을 충분히 살린 세련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매우 가지런하다. 뺄어진 문자는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墨色 濃淡은 대체로 균일한 편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이 진하면서도 농담이 균일하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쇄 등이 드물게 보일 만큼 균정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상하급에 해당한다.

要語: 일본 伏見版, 富春堂版,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쇄기술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4년 9월 10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1) The Hushimi edition refers to 12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 by Tokukawa Ieyasu from 1599 to 1606 at Enkoji temple in Hushimi. It includes one Hushundo Edition printed in wooden type. Four books were printed even in modern period.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and demonstrates quite sophisticated aesthetic touch of the character. Its technical level is upper-lower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very evenly aligned. There are some skewed characters, but the thickness of ink color is consistent overall. Its technical level is upper-lower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fairly consistent dark and thick ink color. It shows high quality, with rare incidences of chinese ink spreads, inadvertent marks of ink on the paper, and double printing. Its technical level is upper-lower grade.

(5) The typography level is upper-lower grade.

Key words: Japanese Hushimi Edition, Hushundo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1. 緒論

일본의 고탈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고탈자 인쇄는 한국이나 중국의 고탈자 인쇄와 비교하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일본만의 특징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된 일본의 고탈자는 필자에 의한 연구¹⁾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 일본의 고탈자에 대한 연구 영역은 불모지인 실정이다. 따라서 동양 삼국 고탈자 인쇄의 진일보한 비교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고탈자 인쇄는 크게 위정자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都와 지방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당시의 정치적 실권자였던 德川家康가 京都 伏見(현 京都시 행정구의 하나)에서 간행한 伏見版 고탈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家康의 인쇄출판 사업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伏見의 圓光寺에서 慶長 4년(1599)부터 11년(1606)까지의 8년간에 足利 학교 제9대 교장(庠主)인 三要素元佶(閑室元佶, 1548-1612)와 相國寺의 西笑承兌 등에 감독을 시켜서 목활자로 간행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간행한 것이 곧 伏見版이다. 圓光寺版이라고도 칭한다. 후기는 전기 이후 10년 정도 지난 德川家康의 만년에 駿河國 駿府(현 靜岡縣 靜岡시)에서 林羅山과 金地院의 崇傳(本光國師) 등에 감독을 시켜서 銅活字로 간행한

1) 曹炯鎭,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89-129. ; 曹炯鎭,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書誌學研究』 第26輯(2003. 12), 1-23. ; 曹炯鎭,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3輯(2012. 12), 85-110. ; 曹炯鎭, “日本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103-136. ; 曹炯鎭, “日本 要法寺版 및 潤輦書院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9), 227-263. ; 曹炯鎭,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6輯(2013. 12), 81-114. ; 曹炯鎭,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8輯(2014. 6), 147-177.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간행한 것이 곧 駿河版이다. 伏見版은 駿河版보다 수량도 많고, 참여자·인쇄지역·인쇄 양식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 伏見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富春堂版과의 관계”를 부제로 한 이유는 伏見版으로 인정되는 일부 판본에 “富春堂 新刊”의 간기가 있어서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伏見版과 富春堂版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일본의 서지학계가 간행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한 고활자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세에 伏見版 고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한 판본이 있다. 간행에 사용된 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도 고활자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에 첨부하여 둔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저록된 것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활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伏見版 및 富春堂版의 개요·伏見版의 활자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²⁾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伏見版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徳川家康의 伏見版과 관련된 연표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2)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2. 伏見版 및 富春堂版의 概要³⁾

2.1 伏見版 및 富春堂版의 定義

2.1.1 伏見版 및 富春堂版의 刊行 主體

2.1.1.1 德川家康

일본의 초기 활자 인쇄 문화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는 後陽成天皇와 함께 德川家康가 있다. 家康는 後陽成天皇의 칙판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의 전란 수습과 治世를 위한 文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치국책의 일환으로 문교 장려 정책에 주력하였다. 家康의 호학과 문교 장려 정책은 중세 말기부터 일기 시작한 문예진흥의 기운을 매우 발전시켰다. 家康가 추구한 학문의 성격은 문예적 경향이 아니고, 의리·경제실용·치국평천하의 학문이었다. 이를 위하여 유학자를 우대하고 서적 간행에 치중하였다.⁴⁾

德川家康로 하여금 伏見版과 駿河版의 간행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소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지식과 교양의 겸비이고, 다른 하나는 적기에 수입된 활자인쇄술이다.⁵⁾

(1) 지식과 교양의 겸비

德川家康는 天文 11년(1542) 三河國 岡崎城(현 愛知縣 岡崎市)에서 출생하

3) 川瀨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東京: 共立社, 1967), 198-227, 694-698. ;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 『印刷博物館開館特別企劃展圖錄: 江戸時代の印刷文化-家康は活字人間だった!!』(東京: 印刷博物館, 2000), 6-14, 30-34, 86. ; 中根勝, 『日本印刷技術史』(東京: 八木書店, 2000), 123-125.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기타는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주의할 점은 川瀨一馬가 『古活字版之研究』를 집필하기 위하여 古活字版을 조사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한 결과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다.

4) 川瀨一馬(1967), 208.

5)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2000), 10-14, 30-34.

여, 天文 18년(1549)부터 永祿 3년(1560)까지 12년간의 소년기를 駿府의 今川義元 家에서 인질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는 今川家の 황금기인데, 이 기간 중에 今川義元의 스승이자 정치·군사의 고문이면서 臨濟寺의 주지인 雪齋로부터 직접 『武經七書』를 교육받는 등 지식과 교양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또한 天文 23년(1554)에 雪齋는 駿府에서 『歷代序略』을, 雪齋의 동생인 建乘은 駿河國 富士山 善得寺에서 『聚分韻略』을 목판으로 간행하는 등, 당시에는 서적 인쇄가 유행하였다. 家康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인쇄 지식을 배워서 인쇄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기에 학문과 문화면에서 받은 영향은 훗날 서적과 학문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德川家康는 그의 부하였던 板坂卜齋의 저서 『板坂卜齋覺書』에 의하면, 儒書·역사서·병서·법률서 분야를 애독하였다. 家康은 그 뿐만 아니라 公家에 전해 오는 전적과 기록 등을 京都 五山の 승려를 모아서 필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수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문고를 설립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家康은 서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家康는 서적 뿐만 아니라, 높은 지식의 학자와 스님들로부터도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였다. 거기에는 妙壽院 주지인 藤原惺窩(유학자)·三要素·藤原惺窩의 제자인 林羅山·金地院 崇傳·天海 등이 있다. 家康 자신도 신외의 정치를 연구하면서 文祿 2年(1593)에는 藤原惺窩와 三要素로부터 『貞觀政要』를 직접 강의 받기도 하였다.

(2) 해외에서 수입된 2종의 활자인쇄술

德川家康 시대에 일본에 수입된 인쇄문화는 2종이 있다. 서양의 것과 조선의 것으로, 모두 금속활자를 사용한 인쇄기술이었다. 이는 종래 일본에서 행해지던 목판인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서양 활판인쇄술은 天正 18년(1590), 로마에 파견되었던 伊東マンショ·原マルチノ·中浦ジュリアン·千千石ミヂルの 4명으로 구성된 天正遣歐使節團이 가지고 귀국한 鉛活字와 목제인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활판술은 加津佐·

天草·長崎 등지에서 예수회에 의하여 기독교 포교용 서적인 크리스찬관 인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慶長 18년(1613) 금교령에 의하여 인쇄술도 이듬해에 마카오로 반출되었다.

조선의 활자인쇄술은 서양 활판술 수입 직후인 文祿 元年(1592)부터 慶長 6년(1601) 사이에 豊臣秀吉의 2회에 걸친 조선 침략에 의하여 수입된 동활자와 함께 인쇄도구·인쇄서적이 그것이다. 이는 인쇄기 없이 인판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인쇄하였다. 이 동활자는 秀吉에 의하여 後陽成天皇에게 헌상되었고, 天皇는 이를 이용하여 「古文孝經」(文祿 칙판)을 간행하였다. 이어서 天皇는 목활자(慶長 칙판)를 조성하여 조선의 인쇄 방법으로 「日本書紀(神代卷)」·「勸學文」 등을 간행하였다.⁶⁾ 徳川家康는 천황의 인쇄사업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인쇄방법에 의한 伏見版 목활자본을 간행하고, 이어서 천황에 헌상된 동활자를 빌려서, 이 활자와 함께 동활자를 주조하여 駿河版 「大藏一覽集」·「群書治要」 등을 간행하였다. 이처럼 武의 지배에서 文治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위정자를 위한 통치 관련 서적을 간행하였다.

徳川家康의 伏見版 간행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 伏見版 「孔子家語」·「貞觀政要」·「周易」 등의 발문에 의하면, 家康의 명에 의하여 간행 작업의 감독은 三要素侁가 하고, 발문은 三要和 西笑承兌가 썼으며, 실무 작업은 慈眼久徳 등이 맡아서 하였다.

2.1.1.2 五十川了庵: 伏見版과 富春堂版의 관계⁷⁾

伏見版으로 알려진 현존 고활자본 중에 慶長 10년(1605)에 간행된 「新刊吾妻鏡(東鑑)」가 있다. 이 판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타의 伏見版과 차이점이 적지 않다. 즉 내용상 平·片假名활자를 혼용하고 있다. 인출된 자적을 보면 伏見版과는 다른 활자로 인출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더구나 卷首 목록 제7엽에는

6) 曹炯鎭(2013. 6), 108-111.

7) 川瀬一馬(1967), 219-224.

“富春堂 新刊”의 간기가 있다. 伏見版으로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권말에 목판으로 인쇄된 承兌의 跋文이 있다. 承兌는 伏見版의 跋文을 쓴 인물이므로, 富春堂版 『新刊吾妻鏡(東鑑)』가 伏見版임을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德川實紀』에 의하면 伏見版 『吾妻鏡』의 간행자는 五十川了庵이다. 따라서 慶長 10년 伏見版 『新刊吾妻鏡(東鑑)』에 있는 “富春堂”은 五十川了庵의 당호로 보인다. 五十川了庵은 天正 7년(1579) 10월 25일 京都 四條坊門에서 출생하였다. 이름은 春昌, 일명 宗知, 후에 春意로 개명하였다.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후 의학에 입문하여 의사가 되었다. 德川家康의 충애를 받아 그의 아들인 忠輝에 베풀하였다. 일찍이 林羅山과 교류하였는데, 林羅山이 惺窩를 만날 때나 吉田素庵과 서신을 교류할 때에도 了庵을 소개하였다. 寬文 元年(1661) 정월 29일 京都에서 병사하였다. 향년 89세.

현존 고향자본 『太平記』에는 卷제40 제12엽하 제10행에 “富春堂 新刊”의 간기가 있는 慶長8년(1603)본이 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존 고향자본 『太平記』는 慶長 8년 富春堂版 『太平記』와 판식과 활자가 동일하면서, 如庵宗乾의 慶長 4년(1599) 『元亨釋書』, 慶長 9년(1604) 『徒然草(壽命院)抄』 등과 동일한 대형 활자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序文 1엽만 판식(9행 17자)과 활자를 달리 하고 있다. 이처럼 慶長8년본과 달리 서문과 본문의 판식이 통일되지 않은 점과 慶長8년본보다 활자가 마모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慶長 8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了庵의 碑銘에서 언급한 慶長7년(1602)본으로 볼 수 있다. 즉 慶長7년본 『太平記』와 慶長8년본 『太平記』는 “富春堂”의 당호를 사용하여 간행한 富春堂版이다.

五十川了庵이 개인적으로 慶長 7년과 8년 富春堂版 『太平記』를 간행한 사실이 幕府에 알려지자, 德川家康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史書인 『吾妻鏡』를 정치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了庵에게 慶長 8년 富春堂 활자로 『吾妻鏡』를 간행하도록 명령하였고, 드디어는 慶長 10년 간행되었다. 그 결과 富春堂版 『吾妻鏡』가 伏見版으로 취급되는 혼동을 야기하였다. 즉 慶長10년본 『吾妻鏡』는 간행 주체

로 보면 伏見版이고, 간행 활자로 보면 富春堂版이다.

그렇다면 家康는 당시에 이미 伏見版 활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了庵에게 명하여 富春堂 활자로 『吾妻鏡』를 간행하도록 하였을까? 이는 『吾妻鏡』의 내용상 假名활자가 필요하였는데 慶長 8-10년 『吾妻鏡』를 간행하던 당시, 三要가 주관하던 伏見版 활자에는 假名활자가 없었다. 또 了庵은 일찍이 假名활자를 혼용한 『太平記』를 2회나 인쇄한 경험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家康는 『吾妻鏡』를 직접 간행하지 않고, 了庵에게 명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慶長 10년 富春堂 활자본 『吾妻鏡』는 承兌의 발문을 붙여서 伏見版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간행 주체에 의하여는 伏見版으로 인정되지만, 인쇄 기술적 요소는 富春堂版이다. 그러므로 인쇄기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富春堂版 연구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2.1.2 伏見版의 刊行 地域⁸⁾

伏見版이란 徳川家康가 京都의 伏見 지역에 있는 圓光寺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판본을 지칭한다.

그러나 家康의 행적을 분석하면 伏見版의 간행이 伏見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家康는 天正 18年 羽柴秀吉(나중의 豊臣秀吉)로부터 關東轉封을 명받고 江戸城(현 東京都 千代田區)로 이주하였다. 慶長 4年 家康의 명으로 伏見版을 처음 간행한 三要元佶는 당시 關東 下野國(현 栃木縣) 足利학교 제9대 교장이었다. 따라서 伏見版의 간행은 關東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家康는 慶長 6年에 비로소 京都 伏見에 足利학교의 上方分校로서 圓光寺 학교를 설립하여 三要元佶에게 관리하게 하고, 자신도 圓光寺에 거주하였다. 家康는 慶長 8年 征夷大將軍(幕府의 주권자의 직명)에 임명되어, 江戸에 武家政權의 政廳인 幕府를 개설하기도 하였지만, 慶長 10年 장군직을 秀忠에게 양위하

8)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2000), 202-203.

고 京都 二條城(京都市 中京區에 있는 平城. 京都 守護와 將軍 上洛 時 숙소로 사용)로 돌아왔다. 이처럼 家康은 伏見에서 伏見版을 간행할 때 江戶에 출타하기도 하였지만, 五十川了庵의 『吾妻鏡』를 포함한 伏見版의 간행은 꾸준히 伏見에서 이루어졌다. 伏見版이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한 듯하다.

2.1.3 伏見版의 刊行 時期

伏見版 목활자의 인쇄는 伏見版 『孔子家語』에 수록된 三要 등의 발문에 의하면, 慶長 4년에 3종을 간행한 것이 시작이다. 慶長 5년(1600)에는 3종, 慶長 9년에는 2종, 慶長 10년에는 五十川了庵에 명하여 간행한 『吾妻鏡』를 포함한 2종, 慶長 11년(1606)에는 1종을 간행하였다. 현존 慶長年間伏見版木活字無訓印本 『萬葉集』도 그 일부의 간행에 伏見版 활자가 사용되었다.⁹⁾ 즉 慶長 4년부터 11년까지 8년간 총 12종¹⁰⁾을 간행하였다.

家康의 元和 2년(1616) 사후에도, 江戶(1603-1867) 중기에 運錦詩屋가 목활자를 보각하여 1종을, 江戶 말기인 文化 12년(1815)-13년(1816)에는 皆川淇園이 약간의 보각을 더하여 3종을 간행하였다.

2.1.4 伏見版의 刊行 手段

모두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재질은 벗어나다.¹¹⁾ 伏見版 목활자는 慶長 4년 徳川家康가 三要元佶에게 수십만 개를 내려주어서 서적 인쇄에 이용되었다.

이 목활자는 慶長 6년 家康가 京都 伏見에 圓光寺를 설립한 후, 關東에서 圓光寺로 옮겨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圓光寺는 慶長 17년(1612) 5월 20일에 三要元佶에 의하여 한때 相國寺로 옮겨다가, 寛文 7년(1667)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

9) 川瀬一馬(1967), 226.

10) 연구자에 따라 『三略』과 『六韜』의 중복을 감안하여 8종 12판본으로 보기도 한다. “2.2.1 伏見版의 數量” 참조.

11)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2000), 86.

하였다.¹²⁾

伏見版 목활자는 江戸 중기의 運錦詩屋와 江戸 말기의 皆川淇園이 서적을 간행할 때 부족한 문자를 보각한 것이 혼재하고 있는데, 목재가 새것이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明治 이후 일시 황폐해질 때 보관 중이던 伏見版 목활자 등도 심히 散佚되었지만, 다행히 아직 90여 상자가 잔존하고 있다. 현존 실물은 52,320개가 기타 인쇄용구와 함께 京都府 愛宕郡 一乗寺村 瑞巖山の 圓光寺에 소장되어 있다. 平成 4년(1992)에는 문화청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향후 현존 활자 실물을 연구할 때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2 伏見版의 數量과 版式

2.2.1 伏見版의 數量

(1) 「標題句解孔子家語」¹³⁾ 3卷 4冊

최초의 伏見版木活字本으로 慶長 4년에 간행되었다. 卷下の 본문 후에 이어지는 발문(제27엽)엽하의 제4~5행에 “慶長第四龍集巳(己)亥仲夏吉辰, 前學校三粟野衲於城南伏見里書焉”과 제7행에 “慈眼刊之”의 간기가 있다. 慶長4년 伏見版 「三略」과 「六韜」의 발문에도 모두 “仲夏吉辰”이라고 하고 있지만, 「六韜」의 표지 안쪽에 「孔子家語」의 과지를 재활용한 점과 「三略」과 「六韜」는 「七書」에 포함되어 대체로 동시에 간행되는 점에서 「孔子家語」가 처음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川瀨一馬는 「孔子家語」의 저본을 조선의 고판본으로 짐작하였다.¹⁴⁾ 사주쌍변, 유계, 7행 17자, 소주쌍행, 음각활자(4~6자 연각)와 목판 병용, 대흑구,

12) 川瀨一馬(1967), 226.

13) (元)王廣謨撰. 부록인 “素王事紀” 1권은 「孔子家語」보다 후에 간행되었는데, 현존본에는 이를 수록한 것도 누락한 것도 있다.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Ⅲ」, (東京: 東洋文庫, 2000), 136.

14) 川瀨一馬(1967), 210-211.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1.6×15.5cm, 판심: 家語上 (장차). 판심제는 소자. 天頭에 소자 2자 쌍행의 標題 또는 音註가 있다.

활자·판식 등은 완전히 같은데, 오직 권말 간어 한 엽만 조판을 달리한 異植字版이 있다.¹⁵⁾

(2) 『三略』 3卷 1册

『黃石公三略』이라고도 칭한다. 병서인 『七書』 내의 하나. 慶長 4년 5월, 慶長 5년, 慶長 9년의 3차에 걸쳐서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3종의 판본 모두에 三要元佶의 발문이 있다. 실사한 慶長9년본의 경우, 卷下 제4엽 다음의 발문엽상 제7~8행에 “于時慶長九龍集甲辰仲冬吉辰, 前龍山元佶叟於伏見城下書焉”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무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1.5×15.7cm, 판심: 三略上 (장차). 판심제는 소자.

(3) 『六韜』 6卷 2册

병서인 『七書』 내의 하나. 慶長 4년 5월, 慶長 5년, 慶長 9년의 3차에 걸쳐서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3종의 판본 모두에 三要元佶의 발문이 있다. 실사한 慶長9년본의 경우, 권6 다음의 발문엽상 제7~8행에 “慶長九年甲辰仲冬吉辰, 前龍山元佶叟於伏見城下書焉”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1.99×15.6cm, 판심: 六韜卷一 (장차). 판심제는 소자.

慶長9년본은 이식자판이 있다.

(4) 『貞觀政要』 10卷 5册

慶長 5년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권10 다음의 발문엽하 제6~8행에 “慶長五年星集庚子花朝節, 前龍山見鹿苑承兌叟謹誌, 慈眼久德刊之”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7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

15) 川瀨一馬(1967), 211.

기: 21.7×15.6cm, 판심: 貞觀一 (장차). 판심제는 소자.

이식자판이 있다. 확실한 차이점은 제1책 제1엽의 <御製貞觀政要序>는 완전히 다른 補版이다. 권제2 제1엽의 제7행 제2자 “玄”의 서체가 완전히 다르다.

(5) 『周易』 6卷 2冊

慶長 10년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권제6 다음의 발문엽하 제7~8행에 “慶長十年星集乙巳孟夏初五日, 鹿苑西笑承兌”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1.3×15.4cm, 판심: 周易卷一 (장차). 판심제는 소자.

이식자판이 4종 있다.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周易上經乾傳第一>의 제1엽 제1행 제10자좌의 “也”와 제3행 제2자우의 “下”에서 명확하다. “也”는 첫획의 끝이 위 또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下”는 목색이 주변의 문자와 같거나 유독 진하다.

(6) 『新刊吾妻鏡』 52卷 25冊

권두제는 『新刊吾妻鏡』로 되어 있는데, 표지 제침과 판심에 『東鑑』로 목서 또는 인쇄되어 있어서 『吾妻鑑』 또는 『東鑑』라고도 칭한다. 慶長 8년 德川家康의 명에 의하여 五十川了庵이 富春堂 목활자로 간행하기 시작하여 慶長 10년 완성한 결과 伏見版으로 인정된다. 卷52 다음의 목판본 발문(7행 14자) 제2엽상 제6~7행에 “慶長十稔星集乙巳春三月 日, 前龍山見鹿苑承兌叟”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12행 20자, 소주쌍행, 平·片假名활자 혼용,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2.7×16.9cm, 판심: 東鑑一 (장차). 판심제는 소자.

(7) 『七書』 25卷 3冊¹⁶⁾

포함하고 있는 저술은 『孫子』 3卷·『吳子』 2卷·『司馬法』 3卷 1冊, 『黃石公三略』 3卷·『六韜』 6卷 1冊, 『尉繚子』 5卷·『唐太宗李衛公問對』 3卷 1冊 등이

16) 4책, 7책, 8책 등으로 분책한 경우도 있다.

다. 慶長 11년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唐太宗李衛公問對』 권하 다음의 발문엽하 제7~8행에 “慶長十一龍集丙午初秋念又一日, 紫陽閑室元佶叟書焉”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1.3×15.6cm, 판심: 孫子上 (장차). 판심제는 소자.

이식자판이 2종 있다.

(8) 『萬葉集』 20卷 9冊

慶長年間 『萬葉集』의 일부분 간행에 伏見版 목활자가 사용되었다. 無訓本이다. 사주쌍변, 무계, 8행 18자(권2 제21엽하 제7행은 19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판 크기: 22.8×16.1cm, 판심: 萬葉卷一 (장차). 판심제는 소자.

(0) 『東鑑』 → 『新刊吾妻鏡』

(0) 『黃石公三略』 → 『三略』

근세에 이르러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된 서적은 다음과 같다.

(9) 『三體詩』

江戶 중기에 運錦詩屋가 현존하던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보각한 목활자가 많이 섞여 있다.¹⁷⁾

(10) 『世說啓微』 2卷 1冊

江戶 말기인 文化 12년에 皆川淇園이 伏見版 목활자에 약간의 보각을 더하여 간행하였다.¹⁸⁾

(11) 『遷史戾柁』 3卷 3冊

江戶 말기인 文化 12년에 皆川淇園이 伏見版 목활자에 약간의 보각을 더하여

17) 川瀨一馬(1967), 698.

18) 川瀨一馬(1967), 226.

간행하였다.¹⁹⁾

(12) 『淇園文集』 12卷, 初編 3卷, 後編 3卷 18冊

江戶 말기인 文化 13년에 皆川淇園이 伏見版 목활자에 약간의 보각을 더하여 간행하였다. 『淇園文集』 12卷과 後編 3권 15책은 伏見版목활자본으로, 사주쌍변, 유계, 8행 17자, 소주쌍행, 화구, 상하향후단어미, 판 크기: 22.1×15.4cm, 판심: 淇園文集 흑어미 卷之一 ○(장차). 판심제는 소자. 初編 3권 3책은 목판본으로 판식이 약간 다르다. 사주단변, 유계, 10행 20자, 소주쌍행, 본문에 假名 토 사용, 화구, 상하향후단어미, 판 크기: 18.3×13.7cm, 판심: 淇園文集 흑어미 卷之一 ||(장차). 판심제는 대자.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된 서적은 다음과 같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9종 18판본을 실사하였으며, 서영도 겸하여 참고한 것은 8종 16판본이다.

伏見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²⁰⁾	비고
1	標題句解孔子家語	3-4	慶長4年(1599)伏見版木活字印本 이식자판 있음	三要跋, 慈眼刊 (4)556-52 (9) ? (11)124.1-7 (12)特172-37(57) (13)p.19
2	萬葉集	20-9	慶長年間伏見版木活字無訓印本	(1)WA7-47 (3)特117-8 (5)41-14-3015 (5)41-12-3013 (11)911.22- 4 29 (12)特831-46(445)
3	三略	3-1	慶長4年(1599)5月伏見版木活字印本	三要跋
4	三略	3-1	慶長5年(1600)伏見版木活字印本	三要跋
5	三略 (黃石公三略)	3-1	慶長9年(1604)伏見版木活字印本	元信跋 (1)WA7-22

19) 川瀬一馬(1967), 226.

20) 일본의 판본사항 저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 刊行’의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 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印本’으로 저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²⁰⁾	비고	
6	新刊吾妻鏡 (東鑑)	52-25	慶長10年(1605)富春堂木活字印伏見 版本	承兌跋	(5)33-上-158
				(2)五E1 (3)特128-1 (4)557-37 (4)鷹-729	(7)110X-34 (7)179-74 (10) ? (6)3-43書
7	六韜	6-2	慶長4年(1599)5月伏見版本活字印本	三要跋	(6) ?
8	六韜	6-2	慶長5年(1600)伏見版本活字印本	三要跋	
9	六韜	6-2	慶長9年(1604)伏見版本活字印本 이식자판 있음	元信跋	이식자판: (7) ? (11)399- 1 17
				(2)三Ak5 (8)091- 卜90-7 ²¹⁾	
10	貞觀政要	10-5	慶長5年(1600)伏見版本活字印本 이식자판 있음	承兌跋 慈眼久德刊	이식자판: (2)三Ai8 (3)別25-2 (4)(秘)402-1
				(1)WA7-32 (2)三Ai(8) (3)別25-3 (5)22-42-59	
11	周易	6-2	慶長10年(1605)伏見版本活字印本 이식자판 4종 있음	西笑承兌跋	(11)122.1- 1 1
				(3)別42-6 (4)(秘)506-34 (5)35-2-537	이식자판: (1)WA7-1 (2)三Aa11
12	七書	25-3	慶長11年(1606)伏見版本活字印本 이식자판 2종 있음	閑室元信跋	(13)p.41 ²²⁾
				(1)WA7-78 (1)WA7-234 ³⁰⁾ (2)三Ak1 ³¹⁾ (5)34-16-658 ³²⁾ (7)110X-38 ³³⁾ (11)399- 1 33 ³⁴⁾ (11)399- 1 37 ³⁵⁾ (13)p.39 ³⁶⁾	(13)p.43 ²³⁾ (13)p.45 ²⁴⁾ (14)p.258 ²⁵⁾ 이식자판: (3)299-203 ²⁶⁾ (8)091- 卜90-7 ²⁷⁾ (11)399- 1 35 ²⁸⁾ (13)p.41 ²⁹⁾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21) 「七書」인데, 「六韜」는 慶長9年(1604)伏見版本活字印本으로 채웠다.
- 22) 「六韜」 6권 2책만 소장.
- 23) 「孫子」 3권 1책과 「吳子」 2권 1책만 소장.
- 24) 「司馬法」 3권 1책과 「尉繚子」 5권 1책만 소장.
- 25) 「唐太宗李衛公問對」 3권 1책만 소장.
- 26) 7책으로 분책.
- 27) 7책으로 분책. 한 질을 갖추기 위하여 「六韜」는 慶長9年(1604)伏見版本活字印本으로, 「黃石公三略」은 慶長11年(1606)伏見版本活字印本の 覆刻本으로 채웠다.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²⁰⁾	비고
13	淇園文集	18-18	文化13年(1816)皆川淇園印伏見版木活字印本	(3)206-140 (3)206-141 (11) ?
14	三體詩		江戸中期運錦詩屋印伏見版木活字印本	
15	世說啓微	2-1	文化12年(1815)皆川淇園印伏見版木活字印本	
16	遷史戾柁	3-3	文化12年(1815)皆川淇園印伏見版木活字印本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 =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書陵部, (5) = 大東急紀念文庫, (6) = 尊經閣文庫, (7) = 慶應義塾大學圖書館, (8) =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9) =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0) = 東京大學史料編纂所, (11) = 天理大學附屬圖書館, (12) = 京都府立總合資料館, (13) = 弘文莊古活字版目錄, (14) = 弘文莊善本目錄.

이상에서 보면 고향자판이 12종, 伏見版 목활자로 간행한 근세 인본이 4종인데, 이들의 크기는 2권 1책에서 52권 25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소형의 저술이 많다. 그 중 「三略」과 「六韜」는 「七書」를 포함하여 4회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지금까지 알려진 伏見版의 번인 내지 仿伏見版은 다음과 같다.

(1) 「貞觀政要」 10卷 5冊: 元和9年(1623)京都忠田吉兵衛慶長5年(1600)伏見版木活字翻印本. (1)WA7-75, (2)三Ai7, (3)286-119, (5)35-21-559, (11)222-125, (臺灣故宮)故觀002859-2868(489).

(2) 「七書(孫子)」 3卷 1冊: 慶長元和年間仿伏見版木活字印本. (11)399-127

28) 「唐太宗李衛公問對」 3권 1책만 소장. 이 판본 외에 같은 분류번호로 慶長元和年間仿伏見版木活字印本 「唐太宗李衛公問對」 3권 1책을 소장하고 있다. 각주 37) 참조.

29) 「唐太宗李衛公問對」 3권 1책만 소장.

30) 「尉繚子」 5권 1책만 소장.

31) 7책으로 분책.

32) 「尉繚子」 5권 1책만 소장.

33) 「司馬法」 3권 1책만 소장.

34) 「唐太宗李衛公問對」 3권 1책만 소장.

35) 「尉繚子」 5권 1책만 소장.

36) 「唐太宗李衛公問對」 3권 1책만 소장.

；「七書(黃石公三略)」3卷 1冊: 慶長元和年間仿伏見版木活字印本. (1)WA7-119
；「七書(吳子)」2卷 1冊: 慶長元和年間仿伏見版木活字印本. (11)399-イ29 ;
「七書(司馬法)」3卷 1冊: 慶長元和年間仿伏見版木活字印本. (11)399-イ31 ;
「七書(唐太宗李衛公問對)」3卷 1冊: 慶長元和年間仿伏見版木活字印本. (11)399-
イ35.³⁷⁾

(3) 「七書」: 慶長末期伏見版覆刻木活字印本. 이는 刊語도 伏見版과 같은데,
刊年은 삭제하였다. (2)三Ak2. 慶長 18년에 이를 다시 복각한 목판본도 있고, 寬永
20년(1643), 正保 3년(1646) 간본도 있다.³⁸⁾

2.2.2 伏見版의 版式 상 特徵

실사자 9종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表紙 題簽 書名:

제침에 묵서된 경우가 5종, 제침에 인쇄된 경우가 「淇園文集」 1종,³⁹⁾ 紺色 표지
에 朱書된 경우가 「周易」 1종, 표지 서명이 없는 경우가 「貞觀政要」·「七書」의
2종이다.

(2) 匡廓 형식:

9종 모두 사주쌍면이다.

(3) 界線 유무:

있는 경우가 8종인 반면에, 없는 경우는 「萬葉集」 1종이다.

(4) 行數:

반 옆에 7행이 「孔子家語」·「貞觀政要」의 2종, 8행이 6종, 12행이 「吾妻鏡」

37) 慶長11年(1606)伏見版木活字異植字印本과 다른 판본이나, 분류번호는 같다.

38) 川瀨一馬(1967), 218.

39) 초편 제1책은 제침이 탈락한 흔적 위에 주서되어 있다.

1종으로 8행이 대부분이다.

(5) 字數:

17자가 7종, 18자가 「萬葉集」 1종, 20자가 「吾妻鏡」 1종으로 17자가 대부분이다.

(6) 小註 형식:

예외 없이 모두 쌍행 형식이다.

(7) 版口 형식:

대흑구가 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淇園文集」만이 화구이다.

(8) 魚尾 형식:

상하내향3엽화문쌍어미가 8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淇園文集」만이 상하향흑단어미이다.

(9) 기타 특징:

판심의 모양이 반복되는 상태를 관찰하면, 판심용 막대를 조각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심을 이루는 판구와 어미 및 양측의 계선은 모두 완전 일체식이며, 판심제와 장차는 이 판심용 막대에 홈을 파서 식자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8종으로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미와 계선이 목판본처럼 붙어 있다. 「淇園文集」 1종만이 조립식 판심을 사용하고 있다. 판심제는 모두 소자이다.

「孔子家語」는 4~6자의 연각 음각 활자를 사용하고 있다.

「吾妻鏡」는 片·平假名 활자를 병용하고 있으며, 권두제는 「吾妻鏡」임에 비하여 판심제는 「東鑑」로 되어 있다.

일본의 각종 판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본만의 특징 중 하나로 판심을 들 수 있다. 복견판 중에서도 江戸 말기에 인출된 「淇園文集」의 판심은 하어미의 위치에 어미를 배치하지 않고 “○”이나 “∥”로 대신한 것을 볼 수 있다(<사진 1>).



<사진 1> 文化13년(1816)皆川淇園印伏見版木活字印本「淇園文集」의 판심

3. 伏見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伏見版「吾妻鏡」는 실제로는 五十川了庵이 富春堂版 목활자로 간행한 것이므로 인쇄 기술은 富春堂版 연구에서 서술하기로 미룬다.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 기술을 평가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자양이 일치하지 않으며 다소 차이 나지만, 매우 유사하여 세련된 수준의 경우가 있다(「孔子家語」·「萬葉集」·「六韜」·「貞觀政要」).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어서 세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黃石公三略」·「周易」·「七書」).

자양이 제법 큰 차이가 있어서 세련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본문에서 문자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목정의 목적을 보면 사면이 방정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淇園文集」).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모든 판본에서 필획의 시작·마무리·돌아가는 곳 등의 윤곽에

서는 역력하고,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도 간혹 보인다.

도각의 흔적이 뺨침에서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黃石公三略』).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역시 모든 판본에서 보인다.

목리가 다소 굵으며 필획의 윤곽이 퇴화하였는데, 간혹 필획이 가는 문자가 섞여 있는 점으로 보아 신조 활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黃石公三略』).

목리가 적지 않게 보이거나(『貞觀政要』), 역력한 경우도 있다(『淇園文集』).

일부 필획이 결실된 문자도 있다. 예: 『黃石公三略』 卷上 제1엽상 4-7의 “好”, 제2엽하 4-13의 “陵”, 『七書(唐太宗李衛公問對)』 권상 제3엽상 2-5의 “勝”, 제3엽하 8-7의 “新”, 제6엽상 7-12의 “則”, 권중 제7엽상 1-4의 “之” 등.

목색으로 보아 목질이 단단함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貞觀政要』).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필획의 윤곽과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에서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소자 역시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貞觀政要』).

3.2.2 文字의 美感

서체의 균형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화려하게 가공되지 않은 소박한 분위기를 풍기는 강건한 느낌을 주고 있다(『孔子家語』·『六韜』·『貞觀政要』). 서체의 균형을 대체로는 잘 유지하고 있으나, 간혹 균형을 잃은

문자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萬葉集』·『黃石公三略』·『周易』·『七書』).

필획을 균정하게 조각하여 힘이 넘치는 구양순 해서체의 심미감을 잘 살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孔子家語』·『六韜』·『貞觀政要』). 필획의 굵기는 균정하지만, 역시 간혹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보인다(『萬葉集』·『黃石公三略』). 필획의 굵기가 달라서 균정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도 있다(『周易』·『七書』).

자양이 다소 차이하지만 각각 서체미를 살리고 있는 세련된 수준이다(『孔子家語』·『六韜』·『萬葉集』). 자양은 제법 차이되면서 서체미도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다. 필획이 균정한 경우는 강건하게 힘이 넘치는 해서체의 심미감을 살리고 있는 문자가 있으나, 대부분은 다듬어지지 않은 도각의 거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黃石公三略』·『貞觀政要』), 다듬어지지 않은 도각의 역력한 거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六韜』·『周易』·『七書』).

서체의 균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문자의 필획은 조각 상태가 너무 균정하지 못한 경우가 판면에 가득하여 거친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 자양은 제법 차이 나서 서체의 심미감을 논할 만큼 도각술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열악한 수준을 면한 정도다(『淇園文集』).

3.3 기타

3.3.1 例外的인 活字

활자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조선의 갑인자·을해자보다는 작고, 갑진자보다는 크다. 강건하게 힘이 넘치는 해서체의 심미감을 살리고 있는 문자가 대부분이지만, 전혀 다른 서체로 심미감을 별로 살리지 못하는 문자가 혼재하면서, 크기도 약간 작고 필획도 가늘어서 보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萬葉集』).

문자에 따라서 목리가 분명하고, 필획의 윤곽과 서체가 퇴화되면서 굵어진 경우가 있어서 제법 사용한 활자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기가 약간 다른 경우도 있다(『七書』).

3.3.2 木板의 並用

『孔子家語』가 유일하다. 이 부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江戸 말기인 文化 13년에 인출된 『淇園文集』가 중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4종이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상중급의 『貞觀政要』를 들 수 있다. 나머지 3종(『黃石公三略』·『周易』·『七書』)은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하급이다.

4. 伏見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모든 판본이 잘 정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심히 구분하면 모든 대소 문자가 계선 중심에 가지런한 경우가 있다(『貞觀政要』·『周易』).

대체로 가지런한 경우도 있고(『孔子家語』·『萬葉集』), 미세한 치우침이 간혹 드물게 보이기도 한다(『黃石公三略』·『六韜』·『七書』·『淇園文集』).

4.1.2 橫列

횡렬 역시 모든 판본이 잘 정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세심히 구분하면 모든 대소 문자가 가지런한 경우가 있다(『貞觀政要』·『周易』).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아주 드물게 굴곡이 있는 엽이 있는 경우가 있다(『孔子家語』·『萬葉集』·『黃石公三略』·『六韜』·『七書』·『淇園文集』).

4.2 字跡의 安置 角度

기술 수준에 약간의 편차가 보인다. 빼뚫어진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소자에서 드물게 보이기는 하나, 눈에 떨 만큼 빼뚫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대체로 바른 배열이다(『孔子家語』·『貞觀政要』·『周易』).

빼뚫어진 문자가 간혹 보이는데, 눈에 띄는 정도는 엽 당 평균 1자 정도(『黃石公三略』·『七書(唐太宗李衛公問對)』) 또는 2~3자 정도에 불과하거나(『萬葉集』·『六韜』), 5~6자 정도인 경우도 있다(『七書(司馬法)』·異植字版『七書』·『淇園文集』).

『七書』는 포함하고 있는 각 저술에 따라 여러 사항에서 편차가 큰 점으로 미루어 숙련도가 다른 조판자 = 균자장이 여러 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대부분 판본에서 공통적으로 부분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孔子家語』·『黃石公三略』·『六韜』·『貞觀政要』·『周易』·『七書(唐太宗李衛公問對)』·『淇園文集』). 자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六韜』·『淇園文集』). 소자에서도 부분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는 점에서 방정한 육면체 활자로 보인다(『周易』).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萬葉集』·『七書(司馬法)』·異植字版『七書』).

4.3.2 印出面의 水平

인출면으로부터 반영된 묵색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활자의 높이가 균일하여 묵색의 농담이 전체에 걸쳐서 대체로 균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엽에 따라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서, 약간 진한 문자와 다소 연한 문자가 간혹 보이지만, 정도 차이는 크지 않다. 그 수량과 빈도도 매우 낮다. 이에서 높이가 균일하고 방정한 육면체 활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孔子家語』·『萬葉集』·『黃石公三略』·『六韜』·『周易』). 목판본에 견줄 만큼 매우 균일한 엽과 다소 차이나는 엽이나 소자에서 드물게 미세하게 차이 나는 문자가 공존하기도 한다(『六韜』·『貞觀政要』).

광곽의 내선과 계선도 모두 잘 인출된 경우가 있다(『孔子家語』). 광곽과 활자의 높이가 달라서 광곽 내선 또는 외선이 오목하게 인출된 곳이 보이기도 한다(『萬葉集』). 광곽의 내선은 거의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계선은 모두 잘 인출되었다(『黃石公三略』·『六韜』). 광곽 내선과 일부 계선이 간혹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실수 없이 균정하게 인출되었다. 육면이 방정한 활자를 조임식으로 조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식자판에서는 묵색의 농담 차이를 대체로 균정하게 수정하였다(『貞觀政要』). 대소 활자의 조판 특징이 비슷할 만큼 매우 고명한 수준이다(『周易』).

묵색의 농담이 활자본임을 알 수 있을 만큼 다소 차이난다. 광곽 내선이 간혹 인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계선은 대체로 잘 인출되었거나(『七書』), 간혹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묵색이 번질 듯한 경우와 연한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異植字版 『七書』).

묵색의 농담은 활자본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제법 차이난다. 번질 듯이 진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을 듯이 연한 문자가 한 엽에 공존하며, 이 현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광곽 내선은 간혹 인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계선은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면서, 상하변 광곽에 근접하지 않고 심한 경우는 2자까지 떨어져 있기도 한다(『淇園文集』).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사본이 조립식 광곽인데, 대부분의 판본에 네 꼭지점이 약간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양호한 경우는 0~1mm 정도(『貞觀政要』·『周易』), 1~2mm 정도(『孔子家語』·『黃石公三略』·『六韜』·『七書』), 또는 2~3mm 정도로 벌어진 것이 있다(『萬葉集』·異植字版『七書』·『淇園文集』).

광곽의 양 끝이 직각으로 채단되지 않고, 45도 각도로 채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곽의 반복되는 목색을 자세히 관찰하면, 광곽용 목재 하나의 중간에 홈을 파서 쌍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식자판도 같은 인판을 사용하였다(『貞觀政要』).

伏見版은 모든 판본에서 조립식 광곽을 사용하고 있고, 식자 방법으로 조임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잠목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5mm 정도의 광곽 위에 고정용 나무못(대체로 가로×세로=12~27×12mm)을 박아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孔子家語』). 16~17mm나 23mm 정도의 위에(『萬葉集』), 또는 18~20mm 정도의 위에(異植字版『七書』), 엽상의 5~6행 14~20mm 위에 가로×세로=5~6×3~6mm의 고정용 나무못을, 엽하의 4행 18~21mm 위에 6×4mm의 고정용 나무못을 박아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六韜』).

인판 좌변(인본 우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20~30mm 밖에 5mm 폭의 길다란 버팀목을 사용하였다. 잠목은 버팀목의 밖에 보인다. 인판 우변(인본 좌변)을 고정하기 위하여는 6~7자 부분의 16~26mm 밖에 가로×세로=5~7×7~10mm의 나무못으로 고정하였다. 잠목은 그의 밖인 29~34mm의 곳에 보인다(『七書(司馬法)』).

4.5 기타

4.5.1 界線 격자

『萬葉集』의 계선 폭은 잡목의 흔적을 측정하면 3.5~4mm 정도(권2 제8엽하, 권3 제4엽상·제27엽하, 권4 제2엽·제7엽, 권5 제3엽하·제5엽하, 권7 제2엽·제6엽, 권8 제13엽, 권9 제6엽하, 권12 제1엽하, 권15 제4엽, 권18 제2엽·제7엽), 행 폭은 16~16.5mm이다. 또 1~2mm의 계선인 듯한 짙막한 잡목이 보인다(권2 제4엽·제5엽, 권3 제4엽·제7엽·제20엽, 권4 제2엽·제3엽·제6엽, 권17 제17엽·제22엽, 권18 제38엽). 이는 활자의 높이와 비슷하게 잘려진 점으로 보아 공간을 채우거나 활자와 계선 사이의 틈을 메워서 고정하기 위한 조각으로 보인다.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조판상의 실수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貞觀政要』의 경우 권제5에만 권말제가 없다. 그러나 이식자판에는 권말제 7자(貞觀政要卷第五)를 도장처럼 한 번에 찍어 넣은 듯한 상태로 존재한다.

4.5.3 校正의 失手

『貞觀政要』 권제2 제17엽의 판심에 장차가 “十四七”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식자판에는 “十七”로 정확하게 교정되어 있다.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은 文化 13년에 인출된 『淇園文集』가 중중급으로 낮은 경우를

제외하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6종인데, 『孔子家語』와 『周易』은 가장 우수한 상중급이다. 『黃石公三略』만이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하급이다.

5. 伏見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の 濃淡

5.1.1 全體의 墨色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연한 엽의 유무에 따라서 농담차가 좌우되었다.

묵색이 대체로 부드러우면서도 균일하고, 먹이 묻어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貞觀政要』).

5.1.2 葉 간의 濃淡差

전체적으로 묵색이 진하면서 간혹 다소 연한 엽이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균일한 편이다(『孔子家語』·『萬葉集』·『周易』·『七書(司馬法)』). 간혹 착묵 상태가 과하여 지나치게 진한 엽이 있기도 하고(『周易』·異植字版『七書』·『淇園文集』), 연한 엽이 섞여 있어서 엽에 따라 농담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다(『黃石公三略』·『六韜』·『七書(唐太宗李衛公問對)』).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묵색인데, 간혹 진한 엽이 있어서 약간의 농담 차이가 보인다. 진한 엽의 예: 『貞觀政要』 권5 제59엽·권6 제4엽·권7 제29엽·권8 제19엽하·권10 제28엽.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였지만, 번진 엽이 없기도 하고(『周易』), 간혹 드물게 엽의 일부에서 번진 경우가 한두 엽 보인다. 정도는 가볍다. 또한 간혹 드물게 문자 필획 간의 목즙이 번진 경우가 있다(『孔子家語』·『六韜』·『七書(唐太宗李衛公問對)』 권하 제6엽·異植字版『七書』·『淇園文集』).

목즙이 번지진 않았으나, 드물게 번질 듯 진한 엽이 있다. 또 착묵이 과하여 번진 문자는 꾸준히 보인다(『萬葉集』).

번진 엽은 없으나, 문자 필획 간의 목즙이 번진 경우가 드물게 보인다(『黃石公三略』·『貞觀政要』). 『貞觀政要』의 권5 제38엽에 10자 정도 보이나, 전체의 목색에 비추어 보면, 거의 예외적이다.

5.2.2 墨汁의 솔림

대체로 목즙의 솔림 현상은 없으나, 일부 판본에서 착묵 상태가 불안정하여 솔린 부분이 보인다(『黃石公三略』·『六韜』·『七書』).

5.2.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목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는 없다.

5.3 雜痕과 雜墨

대부분의 판본이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였고, 부드러운 경우도 있는데, 잡흔과

잡목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淇園文集』), 아주 드물게 미량이 보인다(『孔子家語』·『黃石公三略』·『六韜』·『貞觀政要』·『周易』·『七書』). 『貞觀政要』의 권9 제1엽과 권10 제29엽이 예외적으로 보인다. 『周易』의 <上經泰傳第二> 제14엽의 잡목은 책지를 인판 위에 엮을 때의 부주의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예외적인 현상일 만큼 소량의 잡목이 꾸준히 보이는 경우가 있다(『萬葉集』).

5.4 二重 印出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림자처럼 미세하게 이중 인출처럼 흔적이 보이는 경우는 있다(『孔子家語』 권중 제19엽 등 2곳·『七書(司馬法)』).

예외적으로 이중인출이 있는 경우가 있다(『萬葉集』 권2 제31엽하·『六韜』).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5.5.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판본이 목즙을 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예상컨대 소장자의 허가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면 분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5.2 印出의 強度

인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전반적으로 강하게 인출하여 책지에 요철이 형성되면서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된 경우가 있지만(『六韜』), 수량은 많지 않다(『七書』).

문자 필획의 측면 반영이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異植字版 『七書』).

5.6 着墨의 均整度

전반적으로 묵색은 진하지만, 착묵 상태가 균일하고 판면이 깨끗한 수준이거나(『孔子家語』·『貞觀政要』·『周易』), 착묵이 균정하면서도 약간의 묵색 농담 차이를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萬葉集』·『黃石公三略』).

착묵 상태가 미세하지만 균일하지 못하면서 간혹 번짐이나 쓸림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六韜』·『七書』).

착묵 상태가 균일한 부분은 판면이 매우 깨끗하나, 대체로 묵색이 고르지 못하고 진하거나 연한 경우가 혼재하기도 하고(異植字版 『七書』), 판면이 부분적으로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지만, 비교적 균일한 편이다(『淇園文集』).

5.7 기타

책지의 크기에 여분이 없어서 하단이 재단되지 못한 곳이 있다(『萬葉集』 권4 제13엽, 18mm).

책지의 여백이 천두는 12~25mm, 지각은 20mm, 엽하의 좌측 여백은 21mm 정도(『六韜』), 또는 천두 22mm, 지각 20mm인 경우도 있다(『七書』).

책지가 얇아서 거의 투명하게 보일 정도의 경우가 있다. 예: 권7 제15엽하. 이식자판의 지질이 본판과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식자판을 위하여 손질한 후 지질이 다른 책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책 크기도 다르다(『貞觀政要』).

5.8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묵즙을 사용하는 인출기술이 숙련된 수준이다. 인출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6종, 그중 『孔子家語』가 상중급으로 가장 우수하다. 중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2종이다(『周易』·『淇園文集』).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하급이다.

6.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伏見版의 목활자의 인쇄 기술 수준은 앞에서 분석한 활자 인쇄 3요소의 내용을 종합하여도, 개별적인 판본의 인쇄기술 수준을 분석하여도 상하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적인 판본의 인쇄기술 수준은 『孔子家語』가 상중급으로 가장 우수하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伏見版이란 徳川家康가 慶長 4년부터 11년까지의 8년간, 京都의 伏見 지역에 있는 圓光寺에서 목활자를 이용하여 인출한 12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이에 富春堂版 활자로 인출한 1종이 포함되어 있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四周雙邊, 有界, 8行17字, 小註雙行, 大黒口, 3葉花紋雙魚尾, 一切式 版心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伏見版 목활자는 근세에 이르러서도 4종의 서적 인출에 이용되었다. 현재 52,320개의 활자가 원광사에 소장되어 있다. 1992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문자의 미감도 충분히 세련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매우 가지런하다. 뺄어진 문자는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墨色 濃淡은 대체로 균일한 편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이 균일하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드물게 보일 만큼 균정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하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상하급에 해당한다.

<참고 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京都府立總合資料館編. 「京都府立總合資料館貴重書目錄」. 京都: 京都府立總合資料館, 1971.

慶應義塾大學圖書館編. 「慶應義塾大學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東京: 汲古書院.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貴重書蒐選圖錄解題」. 東京: 汲古書院, 1997.

宮內廳書陵部編. 「(宮內廳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錄(上·下·增加)」. 東京: 宮內廳書陵部, 1952·1953·1968.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編.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漢籍分類目錄」. 東京: 同研究所, 1973.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東京大學史料編纂所圖書目錄(On-Line 目錄)」.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編纂委員會編.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 東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995.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東京: 東洋文庫, 2000.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經·史·子部」. 東京: 東洋文庫, 1978·

1986・1993.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録」. 東京: 東洋文庫, 1934.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録: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録」. 東京: 東洋文庫, 1967.

藤堂祐範. 「淨土教古活字版圖録」. 京都: 藤堂祐範, 1934.

鈴木俊幸. 「近世書籍研究文獻目録」. 東京: ペリカン社, 1997.

反町茂雄編. 「弘文莊古活字版目録」. 東京: 弘文莊, 1972.

反町茂雄編. 「弘文莊善本目録」. 東京: 弘文莊, 1977.

尊經閣文庫編. 「尊經閣文庫國書分類目録」. 東京: 石黒文吉, 1939.

尊經閣文庫編.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録」. 東京: 石黒文吉, 1934.

天理大學附屬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録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40・1951・1960・1998.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目録: 附年間主要増加和漢書目」.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61.

天理圖書館編. 「善本圖録」.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97.

2. 저술·논문·보고서류

京都教育委員會編. 「円光寺所藏伏見版木活字關係歴史資料調査報告書」. 京都: 京都教育委員會, 1991.

近藤正齋. “慶長御版本.” 「右文故事」卷3, 御本日記續録卷中.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 東京: 富山房, 1975. 394-399.

福井保. 「江戸幕府刊行物」. 東京: 雄松堂. 1985. 13-15.

西野嘉章編. 「歴史の文字-記載・活字・活版」. 東京: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1996.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 「印刷博物館開館特別企劃展圖録: 江戸時代の印刷文化-家康は活字人間だっ

- た!!』. 東京: 印刷博物館, 2000.
-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東京: 柏書房, 2000.
-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 曹炯鎮. “日本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108-111.
- 中根勝. 『日本印刷技術史』. 東京: 八木書店, 2000. 123-125.
- 川瀨一馬. “伏見版と駿河版.” 『書物春秋』 第19號(1932. 6).
- 川瀨一馬. 『高木文庫古活字版目錄』. 東京: 高木義一, 1933.
- 川瀨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198-227, 694-698.
- 和田萬吉. 『日本古活字本研究資料』. 東京: 清閑舍, 1944.
- 和田萬吉. 『日本書誌學概説』. 東京: 有光社, 1944.

[부 록] 德川家康의 伏見版 관련 연표

- 天文 11年(1542) 三河國 岡崎城(現 愛知縣 岡崎市)에서 출생.
- 天文 18年(1549) 永祿 3年(1560)까지 12년간 駿府(현 靜岡市)의 今川義元家에서 인질로 성장하면서 臨濟寺의 주지인 雪齋로부터 교육을 받음. 이 시기는 今川家の 황금기.
- 天文 23年(1554) 雪齋가 『歷代序略』을 간행.
- 天文 23年(1554) 駿河國(현 靜岡縣) 富士山 善得寺의 建乘(雪齋의 동생)이 『聚分韻略』을 간행.
- 永祿 3年(1560) 今川義元이 죽자 岡崎로 돌아옴.
- 天正 18年(1590) 羽柴秀吉(나중의 豊臣秀吉)로부터 關東轉封을 명받고 江戸城(현 東京都 千代田區)로 이주.
- 文祿 2年(1593) 유학자 藤原惺窩로부터 『貞觀政要』를 강의 받음.
- 慶長 4年(1599) 關東 下野國(현 栃木縣) 足利학교장 三要素元佶(閑室元佶, 1548-1612)에게 木活字 수십만 개를 주어서 『孔子家語』·『六韜』·『三略』을 간행. 三要素元佶가 감독, 承兌는 발문, 실무 작업은 慈眼久徳.
- 慶長 5年(1600) 三要素元佶에 명하여 『貞觀政要』를 간행, 『六韜』·『三略』은 2차 간행.
- 慶長 6年(1601) 京都 伏見(京都市 행정구의 하나. 시의 남부에 있음.)에 足利학교의 上方分校로서 圓光寺학교를 설립, 三要素元佶에게 관리하게 하고, 자신도 圓光寺에 거주.
- 慶長 7年(1602) 江戸城 富士見亭에 富士見亭문고를 설립.
- 慶長 8年(1603) 征夷大將軍(幕府의 주권자의 직명)에 임명되어, 江戸에 幕府(武家政權의 政廳)를 개설.
- 慶長 9年(1604) 三要素元佶에 명하여 『六韜』·『三略』을 3차 간행.
- 慶長 10年(1605) 五十川了庵에 명하여 『吾妻鏡』를, 三要素元佶에게는 『周易』을 간행하게 함. 林羅山을 二條城(京都市 中京區에 있는 平城. 京都守護와

將軍上洛時 숙소로 사용)로 불리움. 장군직을 秀忠에게 양위.

- 慶長 11年(1606) 三要元佶에 명하여 『七書』를 간행.
- 慶長 17年(1612) 5. 20. 三要元佶에 의하여 圓光寺를 한때 相國寺로 이전, 寬文 7年(1667) 현재의 위치로 이전. 현재 京都 圓光寺에 목활자 52,320개와 기타 인쇄용구가 소장되어 있음.⁴⁰⁾ 平成 4年(1992) 文化廳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지정됨.

40) 京都府教育委員會編, 『圓光寺所藏 伏見版木活字關係歷史資料調查報告書』(京都: 京都府教育委員會, 1991), 3.

